

# 2023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I. 2023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3년 3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 <요 약>

### I. 2023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 2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12.0% 감소, 전기 대비로는 3.0% 증가

- 2023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771억 달러) 대비 12.0% 감소, 전분기(1,513억 달러) 대비로는 3.0% 증가한 **1,558억 달러**
- 중국 및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반도체 가격 및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 기록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이,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아세안 등이 감소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4p 상승한 92

- 생산원가가 전기에 비해 하락하면서 수출채산성 평가가 상승하고, 수출물량 평가도 개선돼 전반적인 수출업황 평가 상승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1				'22				'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104	99	94	101	93	94	90	91	88	<b>92</b>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7	96	95	100	90	94	92	91	88	<b>92</b>
수출단가 평가지수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105	<b>100</b>
생산원가 평가지수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114	<b>108</b>
수출물량 평가지수	108	103	98	107	97	97	89	91	83	<b>93</b>
자금사정 평가지수	101	97	96	99	93	94	93	96	94	<b>97</b>

- 수출채산성 평가는 섬유, 플랜트/해외건설, 기계류 등은 상승, 신재생에너지, 선박 등은 하락
- 수출물량 평가는 섬유, 해운, 전기전자, 플랜트/해외건설, 기계류 등 모든 산업에서 상승

####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플랜트/해건	신재생에너지	선박	문화콘텐츠	해운	대기업	중소기업
'23.1Q	91	90	89	85	92	74	100	86	102	75	80	88	88
'23.2Q	<b>98</b>	<b>97</b>	<b>88</b>	<b>79</b>	<b>98</b>	<b>91</b>	<b>109</b>	<b>86</b>	<b>100</b>	<b>86</b>	<b>87</b>	<b>101</b>	<b>91</b>



## II. 2023년 3분기 수출 전망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6.7p 하락, 전기 대비로는 0.5p 상승

- '23년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3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6.7p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0.5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는 지속되겠지만, 2022년 3분기 이후 4분기만에 전기 대비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함에 따라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될 전망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07.4	111.5	118.3	123.0	124.1	126.1	129.0	128.8	123.8	121.8	<b>122.3</b>
전년동기대비 증감(p)	4.5	9.3	26.6	19.8	16.8	14.6	10.7	5.9	△0.4	△4.3	<b>△6.7</b>
전기대비 증감(p)	4.2	4.1	6.8	4.6	1.2	2.0	2.9	△0.2	△5.1	△1.9	<b>0.5</b>

### 미국 등 주요국 경기 개선,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상승 등 수출 경기 회복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중국 경기가 전 분기 대비 둔화되고 유로존 등도 성장을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 및 아시아 국가 경기는 소폭 개선
  -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1.5('22.3Q)→2.2(4Q)→2.0('23.1Q)→**3.0(2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0.03p 상승한 44.63을 기록, 기준선(50)을 하회하고 있으나 2021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전기 대비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
  -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52.6('22.2Q)→48.8(3Q)→47.2(4Q)→44.60('23.1Q)→**44.63(2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0.3%, 전기 대비로는 9.6% 하락하는 등 전기에 비해 하락폭 확대
- 가격 경쟁력 : 2023년 2분기 환율은 달러당 **1,315원**으로 전 분기인 1분기 달러당 1,276원보다 **3.1% 상승**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전기 대비 상승
  -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달러인덱스가 15개월만에 100 이하로 하회하는 등 달러가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260('22.2Q)→1,338(3Q)→1,359(4Q)→1,276('23.1Q)→**1,315(2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247('23.1)→ 1,271(2)→ 1,306(3)→ **1,320(4)→ 1,328(5)→ 1,297(6)**



- **수출물가** : 반도체 단가 하락세는 당분간 유지되겠으나 유가는 전기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가 하락폭은 축소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17.1('22.2Q)→109.4(3Q)→104.0(4Q)→102.8('23.1Q)→**99.7(2Q)**

-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상위 3개 업체의 감산 효과가 2분기부터 가시화됨에 따라 3분기에는 가격 하락 폭이 전기 대비 5% 미만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2.20('22.4Q)→1.82('23.1Q)→1.55(2Q)→**1.50(3Q)**

- **유가**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및 석유 재고 감소, 중국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감, 주요 산유국 감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0.4('23.1)→82.1(2)→78.5(3)→**83.4(4)→75.0(5)→75.0(6)**

- **주요 산업** : 반도체 업황이 다소 개선되고 자동차, 선박 등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3분기에는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

-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수출 감소세는 이어지겠으나 주요 업체 감산으로 하반기 이후 공급 과잉이 해소됨에 따라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될 전망

### 2023년 3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하락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신규주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한 1,650억 달러 내외** 수준 전망

- 수출액은 전기(1,558억 달러)보다는 증가하겠으나, 2022년 3분기 수출이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세는 지속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2.2Q) 1,771→**(3Q) 1,740**→(4Q) 1,592→('23.1Q) 1,513→(4Q) 1,558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2.2Q) 13.0→(3Q) 5.8→(4Q) △10.0→('23.1Q) △12.7→(2Q) △12.0

- 다만, 중국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음.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원화환율 불안정'(36.4%), '원재료 가격 상승'(35.6%) 순 응답

-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화환율 불안정'(44.9%→36.4%)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43.3%→35.6%) 응답률도 전기보다는 줄었지만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27.6%→32.4%)의 응답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1.7%→30.4%),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12.8%→17.6%) 응답률도 증가 지속



## I. 2023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2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12.0% 감소, 전기 대비로는 3.0% 증가

- 2023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771억 달러) 대비 12.0% 감소, 전분기(1,513억 달러) 대비로는 3.0% 증가한 **1,558억 달러**
- 중국 및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반도체 가격 및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 기록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이,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아세안 등이 감소
- 상반기 수출은 3,07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4% 감소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액	1,464	1,567	1,645	1,767	1,734	1,771	1,740	1,590	1,513	<b>1,558</b>
증감률(%)	12.5	42.0	26.5	24.5	18.4	13.0	5.8	△10.0	△12.7	<b>△12.0</b>
수출물가지수	99.8	107.0	110.4	110.6	112.6	117.1	109.4	104.0	102.8	<b>99.7</b>
증감률(%)	8.7	22.3	22.0	18.1	12.8	9.5	△0.9	△6.0	△8.7	<b>△14.9</b>
수입물가지수	107.4	113.6	119.1	123.4	131.5	136.7	128.0	122.2	121.7	<b>116.0</b>
증감률(%)	7.9	24.8	26.1	26.3	22.4	20.3	7.5	△1.0	△7.4	<b>△15.1</b>
수출물량지수	116.4	118.5	119.9	126.6	124.3	121.1	124.8	119.8	118.3	<b>120.5*</b>
증감률(%)	5.0	19.4	4.9	4.5	6.8	2.2	4.1	△5.4	△4.9	<b>△0.6</b>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달러화 기준)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 2분기 수출물량지수는 4~5월 평균



## 수출 단가 하락 지속으로 반도체·석유화학 위축, 친환경 수요 증가로 자동차·이차전지는 호조세

- **반도체**(△34.8%)는 공급업체 감소, 모바일·AI서버 등 전방산업 회복 기대 등으로 D램 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수출 감소율 축소 중  
※ D램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3.40('22.2Q)→2.80(3Q)→2.20(4Q)→1.82('23.1Q)→**1.55(2Q)**
- **석유화학**(△24.1%)은 글로벌 수급 불균형으로 수출 물량은 증가했으나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108.1('22.2Q)→96.9(3Q)→84.9(4Q)→80.3('23.1Q)→**77.8(2Q)**
- **일반기계**(+5.7%)는 미국, EU, 중동 등지의 인프라 투자사업 확대로 수출 증가세 전환
- **자동차**(+49.0%)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 및 부품 수급 문제로 지연됐던 전년 대기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출 호조세 지속,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기록
- **선박**(+21.1%)은 수주 호조로 전환된 21년도 수주 물량의 생산,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증가세 확대  
※ 선박 수주액(조원) : 23.9('18)→ 23.5('19)→ 19.0('20)→ **40.5('21)**→ 46.9('22)
- **이차전지**(+2.2%)는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확대로 전기차 및 ESS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튬이온 축전지 수출 증가세도 유지

##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3/4	4/4	'23. 1/4	2/4	4월	5월	6월
반도체	14.0	29.7	36.3	34.6	29.0	13.6	△3.9	△25.8	△40.0	△ <b>34.8</b>	△41.0	△36.2	△28.0
석유화학	26.1	80.0	64.0	54.1	27.6	6.9	△9.7	△25.1	△22.4	△ <b>24.1</b>	△23.6	△26.5	△22.0
일반기계	△6.8	16.8	7.7	2.7	11.5	0.3	0.2	△3.1	△2.0	<b>5.7</b>	7.8	1.6	8.1
자동차	31.4	74.7	6.5	4.9	△0.4	6.8	31.2	29.0	43.9	<b>49.0</b>	40.3	49.3	58.3
석유제품	△17.0	110.3	71.6	113.7	91.1	90.9	78.3	18.0	△0.4	△ <b>34.3</b>	△28.7	△33.2	△40.9
선박류	28.2	11.8	△1.4	22.9	△45.3	△6.7	6.3	△22.5	1.9	<b>21.1</b>	59.2	△48.0	98.6
이차전지	15.5	33.2	12.3	4.1	11.6	8.1	25.5	15.1	11.0	<b>2.2</b>	△4.4	△4.9	16.3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 자동차 판매 호조로 EU 수출 증가세 유지, 유가하락 등 영향으로 중국·아세안 수출 감소 지속

- **중국 수출**(△22.2%)은 공장 가동률 하락 지속으로 인한 반도체, 석유화학 수출 부진, 자국산 대체화로 인한 일반기계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미국**(△2.6%)은 자동차, 일반기계 수출 호조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출액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로 전환
- **아세안**(△21.6%)은 경기 둔화에 따른 IT 수요 위축,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액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EU**(+7.8%)는 자동차 및 차부품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주 및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폭 확대
- **CIS**(+94.3%)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3월부터 수출이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 확대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3/4	4/4	'23 1/4	2/4	4월	5월	6월
중국	25.0	22.9	19.8	24.2	15.5	△1.0	△4.9	△22.9	△29.7	<b>△22.2</b>	△26.5	△21.1	△19.0
미국	19.9	52.0	27.4	22.6	13.9	22.2	15.2	6.9	3.4	<b>△2.6</b>	△4.4	△1.5	△1.8
일본	△4.9	33.0	28.9	27.6	15.1	8.9	0.0	△14.0	△10.4	<b>△11.0</b>	△21.1	△8.4	△3.7
아세안	△4.8	47.4	26.4	28.2	38.4	26.1	15.4	△12.5	△19.2	<b>△21.6</b>	△26.4	△21.2	△16.6
EU(27)	30.9	56.4	32.3	18.5	5.9	10.2	7.2	5.0	3.7	<b>7.8</b>	9.8	△3.0	18.2
중동	△18.3	10.2	13.7	23.9	24.4	16.2	10.7	1.6	15.5	<b>13.0</b>	31.1	△2.4	14.0
CIS	△13.8	39.2	31.3	27.4	5.2	△43.3	△19.5	△9.5	7.3	<b>94.3</b>	119.1	78.8	88.0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 원유 가격 안정 및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입 물가 하락 폭 확대

- 2분기 수출물가(달러화 기준)는 유가 안정화로 원유정제처리제품 단가가 하락하고, D램 등 반도체 단가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4.9%, 전기 대비 3.0% 하락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108.1('22.2Q)→96.9(3Q)→84.9(4Q)→80.3('23.1Q)→**77.8(2Q)**

- 원유정제처리제품 수출 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34.2%, 전기 대비 11.2% 하락하며 전기(각각 △7.0%, △8.0%)에 비해 하락 폭이 확대됐고, 반도체 단가도 전년동기 대비 40.8%, 전기대비 12.3% 하락하는 등 수출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24.4%, 전기 대비 5.9%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5.1%, 전기 대비 4.7% 하락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 가. 전체 수출업황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4p 상승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p 하락했지만 전기 대비로는 4p 상승한 92
- 생산원가가 전기에 비해 하락하면서 수출채산성 평가가 상승하고, 수출물량 평가도 개선돼 전반적인 수출업황 평가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 물가가 하락하면서 수출단가 평가(전기 대비 5p↓)도 하락했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생산원가 평가(전기 대비 6p↓)가 더 크게 하락해, 종합적인 수출채산성 평가는 전기 대비 4p 상승한 92
- (수출물량 평가지수) 6월 이후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수출 물량이 회복되기 시작해 전기 대비 10p 상승한 93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및 전기 대비 3p 상승한 97 기록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1				'22				'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104	99	94	101	93	94	90	91	88	92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7	96	95	100	90	94	92	91	88	92
수출단가 평가지수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105	100
생산원가 평가지수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114	108
수출물량 평가지수	108	103	98	107	97	97	89	91	83	93
자금사정 평가지수	101	97	96	99	93	94	93	96	94	97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 기업규모별 : 대기업(88p→101p), 중소기업(88p→91p) 모두 전기 대비 상승

- 수출업황 및 수출채산성, 수출물량 모두 대기업, 중소기업의 평가가 상승했으나, 대기업(각각 101, 97, 102)의 평가 수준이 중소기업(각각 91, 92, 92)의 평가 수준을 크게 상회





**산업별 : 플랜트/해외건설(100p→109p), 전기전자(91p→98p), 기계류(90p→97p)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승, 석유화학(85p→79p), 철강/비철금속(89p→88p) 등은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는 섬유(78p→94p), 플랜트/해외건설(92p→105p), 기계류(85p→96p) 등은 상승, 신재생에너지(91p→86p), 선박(102p→98p) 등은 하락
- 수출물량 평가는 섬유류(72→93), 해운(70→90), 전기전자(82p→98p), 해외건설/플랜트(94p→107p), 기계류(84p→94p) 등 모든 산업에서 상승

**수출지역별 : 일본(88p→98p), 북미(86p→94p), 중국(84p→87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업황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는 북미(87p→96p), 유로존(84p→91p) 등은 상승, 중국(82p→87p)은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수치는 저조, 엔화가치 하락으로 일본(96p→94p)은 하락
- 수출물량 평가는 유로존(78p→93p), 북미(81p→96p), 일본(87p→98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3. 1/4	2/4	'23. 1/4	2/4	'23. 1/4	2/4
전 체		88	92	88	92	83	93
규모	대 기 업	88	101	90	97	83	102
	중 소 기 업	88	91	88	92	83	92
산업	전 기 전 자	91	98	91	99	82	98
	기 계 류	90	97	85	96	84	94
	철 강 / 비 철 금 속	89	88	85	86	80	90
	석 유 화 학	85	79	88	88	81	82
	자 동 차	92	98	94	97	95	102
	섬 유 류	74	91	78	94	72	93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100	109	92	105	94	107
	신 재 생 에 너 지	86	86	91	86	91	91
	선 박	102	100	102	98	96	100
	문 화 콘 텐 츠	75	86	85	82	75	77
수출 지역	해 운	80	87	83	87	70	90
	북 미	86	94	87	96	81	96
	중 국	84	87	82	87	78	82
	일 본	88	98	96	94	87	98
	유 로 존	84	91	84	91	78	93
	동 남 아	90	89	91	90	85	90
	중 남 미 동	105	111	98	104	105	107
중 동	중 동	94	83	84	83	84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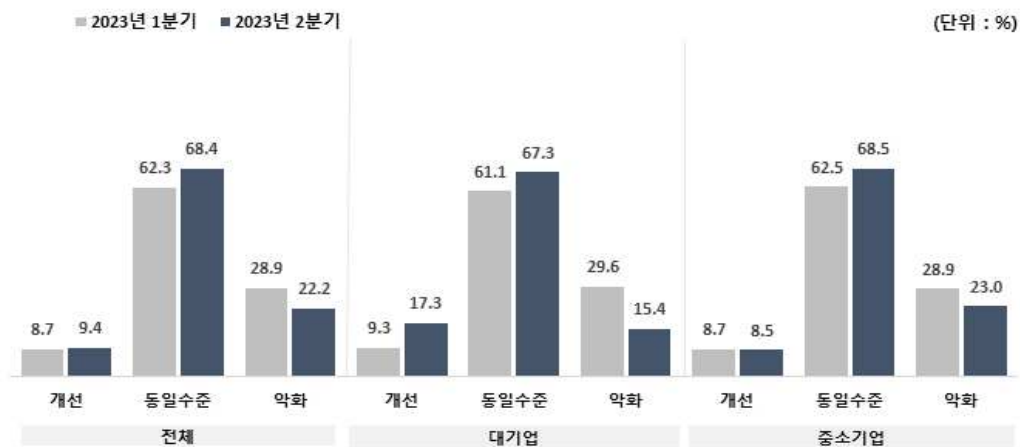
###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00개사)

##### 수출업황 '개선' 9.4%, '악화' 22.2%로 악화 응답률 높지만 전기보다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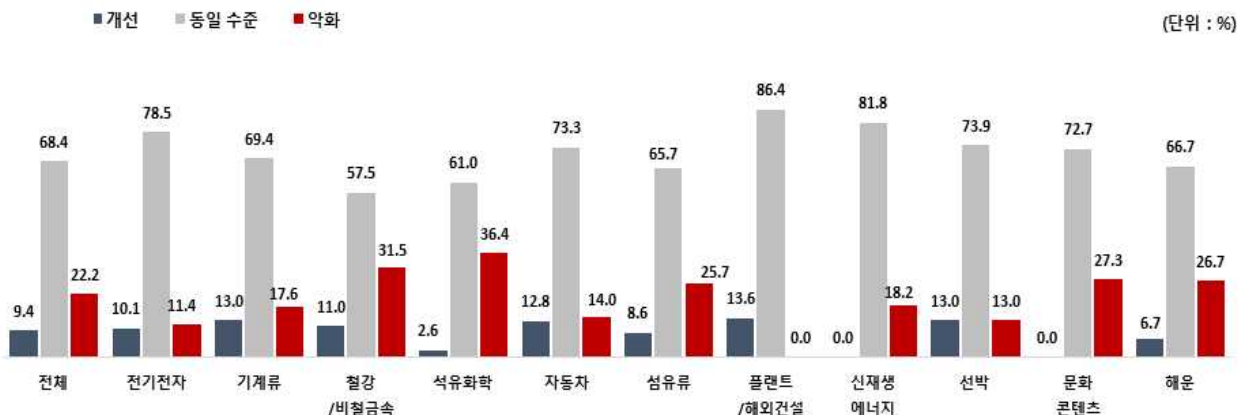
-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0.7%p, '동일 수준' 응답은 6.1%p 증가한 반면 '악화' 응답은 6.7%p 감소
- (규모별)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대기업이 8.0%p 증가, 중소기업은 0.2%p 감소했으며, '악화' 응답은 대기업 14.2%p, 중소기업 5.9%p 감소해 대기업 업황이 상대적으로 더 개선

#### 2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개선' 응답은 기계류(6.5%→13.0%), 자동차(9.4%→12.8%) 등에서 증가, '악화' 응답이 크게 감소한 분야는 해운(46.7%→26.7%), 석유류(41.7%→25.7%), 전기전자(26.3%→11.4%) 등

#### 2분기 수출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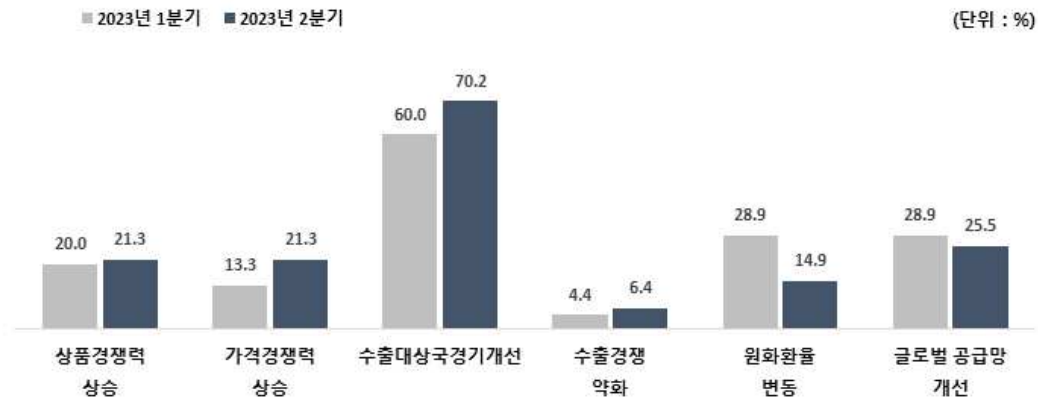


##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00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7개사, 복수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70.2%), '글로벌 공급망 개선'(25.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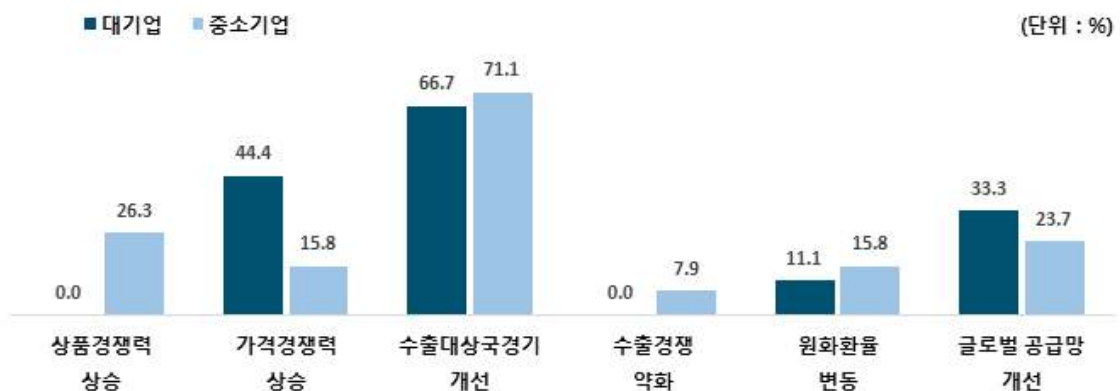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60.0%→70.2%)이 전기보다 증가하며 최대 비중 차지, '글로벌 공급망 개선'(28.9%→25.5%) 응답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두 번째로 높음.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은 수출지역이 북미(76.9%), 일본(75.0%), 동남아(80.0%), 중남미(100.0%) 등 인 기업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원화가치가 전기보다 하락함에 따라 '가격경쟁력 상승'(13.3%→21.3%) 응답도 증가

###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을 가장 높게 응답한 가운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은 '상품 경쟁력 상승'(26.3%), '글로벌 공급망 개선'(23.7%) 순으로 응답했고,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상승'(44.4%), '글로벌 공급망 개선'(33.3%)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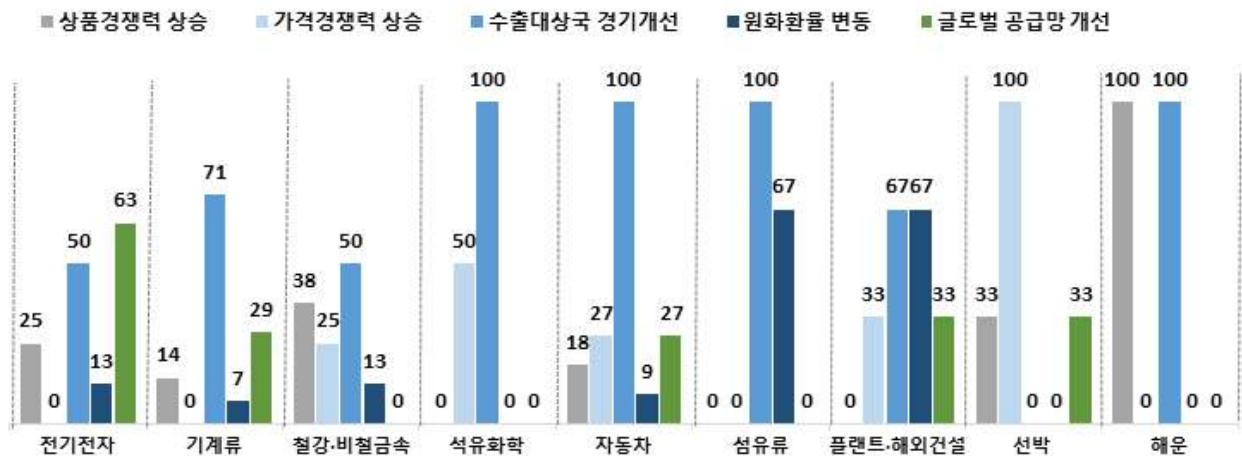
###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 (산업별) 자동차(100%), 석유화학(100%), 섬유류(100%), 해운(100%), 기계류(71%) 등이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글로벌 공급망 개선'은 전기전자(63%)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원화환율 변동'은 섬유류(67%), 플랜트/해외건설(67%) 등에서 높게 응답
- '상품 경쟁력 상승'은 해운(100%), 철강·비철금속(38%), 선박(33%) 등에서, '가격 경쟁력 상승'은 선박(100%), 석유화학(50%), 플랜트/해외건설(33%) 등에서 높게 응답

##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승	가격경쟁력 상 승	수출대상국 경 기 개 선	수 출 경 쟁 화	원 화 환 율 동	글로벌 공 개
전 체		21.3	21.3	70.2	6.4	14.9	25.5
규모	대 기 업	0.0	44.4	66.7	0.0	11.1	33.3
	중 소 기 업	26.3	15.8	71.1	7.9	15.8	23.7
산업	전 기 전 자	25.0	0.0	50.0	0.0	12.5	62.5
	기 계 류	14.3	0.0	71.4	7.1	7.1	28.6
	철 강 / 비 철	37.5	25.0	50.0	12.5	12.5	0.0
	석 유 화 학	0.0	50.0	100.0	50.0	0.0	0.0
	자 동 차	18.2	27.3	100.0	0.0	9.1	27.3
	섬 유 류	0.0	0.0	100.0	0.0	66.7	0.0
	플랜트/해건	0.0	33.3	66.7	0.0	66.7	33.3
	선 박	33.3	100.0	0.0	33.3	0.0	33.3
	해 운	100.0	0.0	100.0	0.0	0.0	0.0
수출 지역	북 미	23.1	38.5	76.9	0.0	7.7	15.4
	중 국	16.7	16.7	50.0	0.0	33.3	33.3
	일 본	16.7	0.0	75.0	16.7	16.7	33.3
	유 로 존	42.9	42.9	57.1	0.0	0.0	28.6
	동 남 아	0.0	20.0	80.0	20.0	20.0	0.0
	중 남 미	33.3	0.0	100.0	0.0	0.0	33.3

주 : 전체 설문 500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7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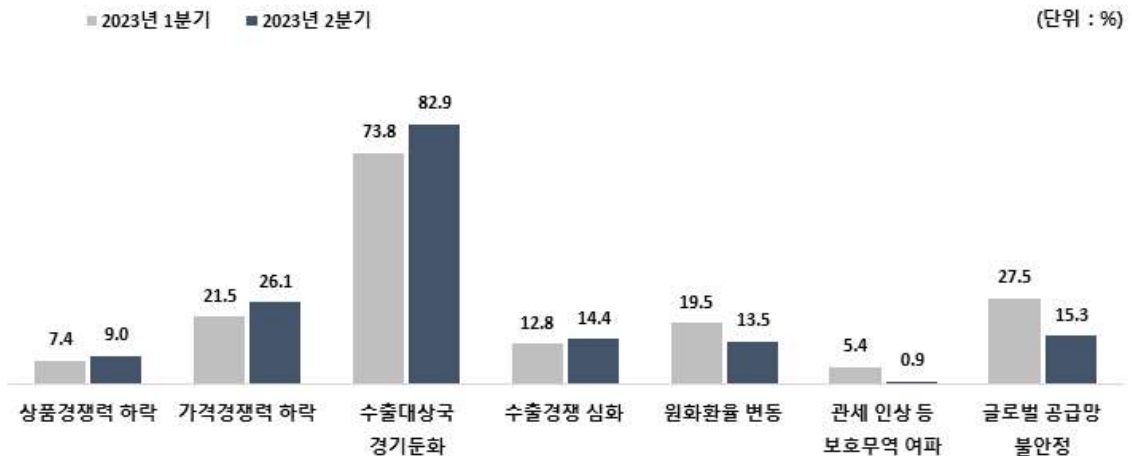


##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00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11개사, 복수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82.9%), '가격 경쟁력 하락'(26.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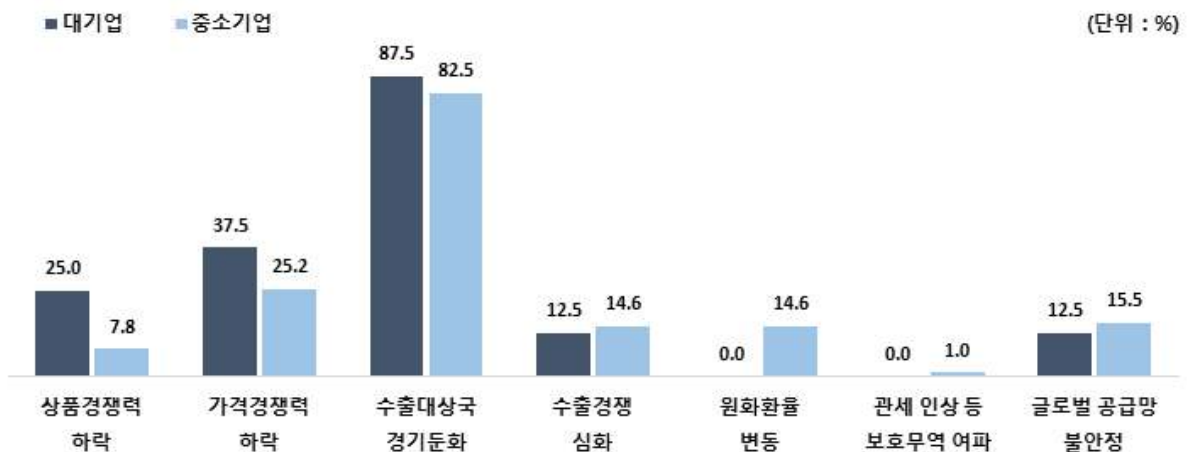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73.8%→82.9%)가 전기에 비해 **9.1%p** 상승하며 수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경쟁력 하락'(21.5%→26.1%)도 전기보다 **4.6%p** 상승하면서 두 번째로 많이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일본(76.9%→90.9%)**, **중국(67.6%→84.6%)**, **유로존(66.7%→84.2%)**인 기업에서 많이 응답

###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87.5%)과 중소기업(82.5%)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두번째로 높은 '가격 경쟁력 하락'을 대기업에서는 37.5%, 중소기업에서는 25.2% 응답

###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 (산업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신재생에너지(100%), 철강/비철금속(95.7%), 전기전자(88.9%), 석유화학(85.7%), 자동차(83.3%) 산업에서 많이 응답
- '가격 경쟁력 하락'은 기계류(42.1%), 석유화학(35.7%) 등에서 많이 응답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해운(75.0%), 선박(66.7%) 등에서 여전히 높게 응답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쟁 하	품 경 쟁 력 하	가 경 쟁 력 하	수 출 대 상 국 경 기 둔 화	수 경 심	수 출 경 쟁 화	원 환 변	화 물 동	관 세 인 상 등 보 호 무 역	글 로 벌 공 급 망 불 안 정
전 체		9.0	26.1	82.9	14.4	13.5	0.9	15.3			
규 모	대 기 업	25.0	37.5	87.5	12.5	0.0	0.0	12.5			
	중 소 기 업	7.8	25.2	82.5	14.6	14.6	1.0	15.5			
산 업	전 기 전 자	11.1	22.2	88.9	11.1	11.1	0.0	11.1			
	기 계 류	15.8	42.1	73.7	5.3	15.8	0.0	21.1			
	철 강 / 비 철	0.0	17.4	95.7	26.1	17.4	0.0	4.3			
	석 유 화 학	3.6	35.7	85.7	7.1	17.9	3.6	14.3			
	자 동 차	16.7	16.7	83.3	0.0	8.3	0.0	25.0			
	섬 유 류	11.1	22.2	77.8	22.2	0.0	0.0	0.0			
	신재생에너지	0.0	0.0	100.0	0.0	50.0	0.0	0.0			
	선 박	33.3	0.0	66.7	33.3	0.0	0.0	66.7			
	문 화 콘 텐 츠	33.3	0.0	66.7	0.0	0.0	0.0	33.3			
	해 운	0.0	0.0	75.0	50.0	0.0	0.0	75.0			
수출 지역	북 미	19.2	19.2	80.8	11.5	3.8	3.8	11.5			
	중 국	3.8	26.9	84.6	3.8	15.4	0.0	23.1			
	일 본	0.0	27.3	90.9	18.2	27.3	0.0	18.2			
	유 로 존	0.0	36.8	84.2	31.6	15.8	0.0	10.5			
	동 남 아	13.0	21.7	73.9	13.0	17.4	0.0	17.4			
	중 동	0.0	100.0	100.0	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500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11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II. 2023년 3분기 수출 전망

### 1. 수출선행지수 추이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6.7p 하락, 전기 대비로는 0.5p 상승

- '23년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3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6.7p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0.5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는 지속되겠지만, 2022년 3분기 이후 4분기만에 전기 대비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함에 따라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될 전망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용 수입액 등은 수출입 물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 경기,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기계 수주액 등은 전기 대비 상승

수출 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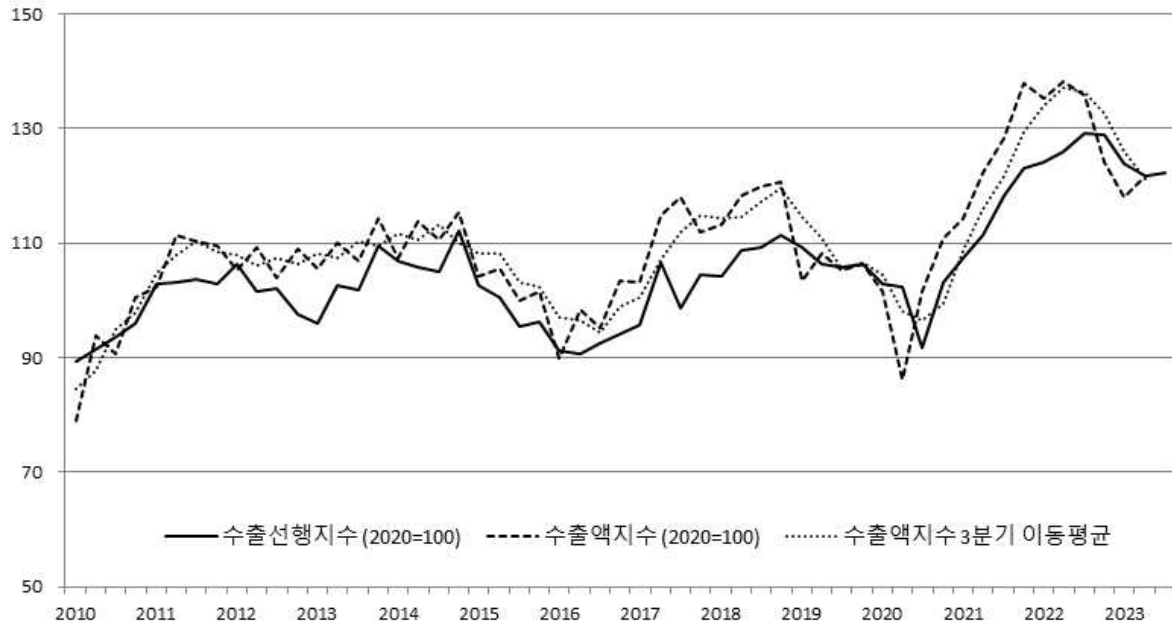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07.4	111.5	118.3	123.0	124.1	126.1	129.0	128.8	123.8	121.8	<b>122.3</b>
전년동기대비 증감(p)	4.5	9.3	26.6	19.8	16.8	14.6	10.7	5.9	△0.4	△4.3	<b>△6.7</b>
전기대비 증감(p)	4.2	4.1	6.8	4.6	1.2	2.0	2.9	△0.2	△5.1	△1.9	<b>0.5</b>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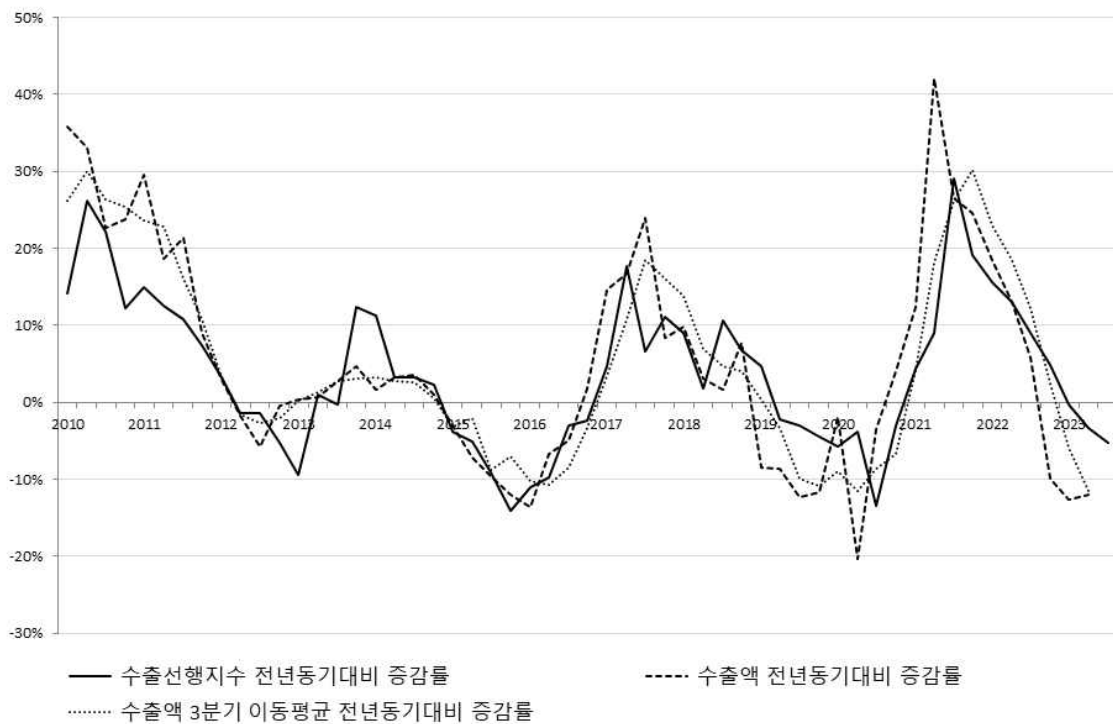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 미국 등 주요국 경기 개선,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상승 등 수출 경기 회복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중국 경기가 전 분기 대비 둔화되고 유로존 등도 성장률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 및 아시아 국가 경기는 소폭 개선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1.5('22.3Q)→2.2(4Q)→2.0('23.1Q)→**3.0(2Q)**

- WTO 상품무역지수 : 수출 신규 주문, 자동차 무역 등이 증가하면서 전분기(92.2)보다 높은 95.6 기록, 무역 위축은 지속되고 있으나 무역 거래량 증가 전환 시사

※ **Goods Trade Barometer\***(WTO) : 99.0('22.1Q)→100.0(2Q)→96.2(3Q)→92.2(4Q)→**95.6('23.1Q)**

\* 2022년 6월=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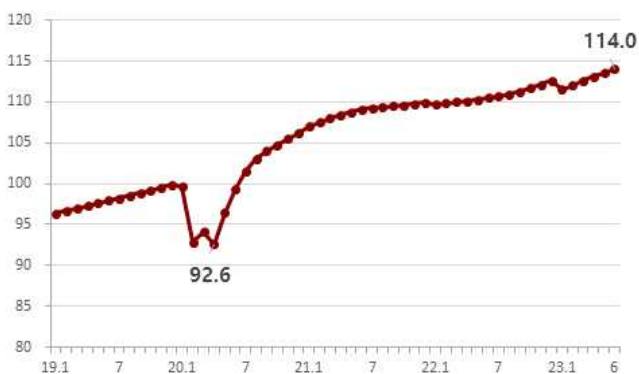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0.03p 상승한 44.63을 기록, 기준선(50)을 하회하고 있으나 2021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전기 대비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52.6('22.2Q)→48.8(3Q)→47.2(4Q)→44.60('23.1Q)→**44.63(2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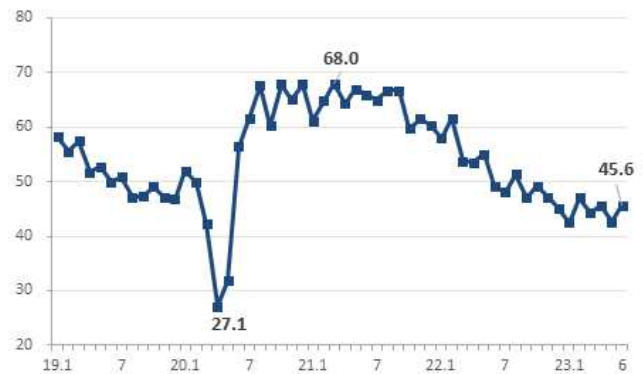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42.5('23.1)→47.0(2)→44.3(3)→**45.7(4)→42.6(5)→45.6(6)**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주 : OECD 선행지수 활용, 성장률 반영 (2020=100)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유가 하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0.3%, 전기 대비로는 9.6% 하락하는 등 전기에 비해 하락폭 확대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20=100): 199.0('22.2Q)→206.0(3Q)→174.9(4Q)→175.5('23.1Q)→**158.6(2Q)**

※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45.1('22.2Q)→33.3(3Q)→4.4(4Q)→△3.4('23.1Q)→△**20.3(2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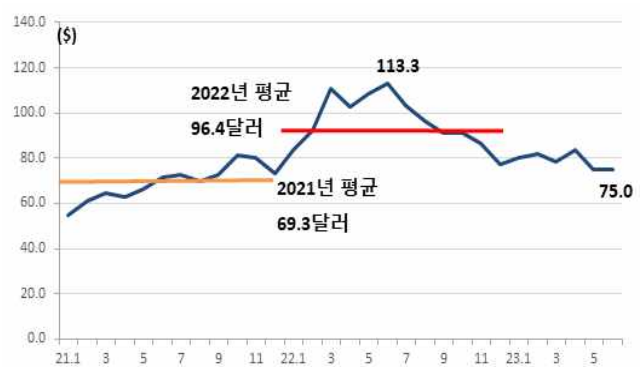
- **가격 경쟁력** : 2023년 2분기 환율은 달러당 **1,315원**으로 전 분기인 1분기 달러당 1,276원보다 **3.1% 상승**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전기 대비 상승**
  -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달러인덱스가 15개월만에 100 이하로 하회하는 등 달러가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260('22.2Q)→1,338(3Q)→1,359(4Q)→1,276('23.1Q)→**1,315(2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247('23.1)→ 1,271(2)→ 1,306(3)→ **1,320(4)→ 1,328(5)→ 1,297(6)**
- **수출물가** : 반도체 단가 하락세는 당분간 유지되겠으나 유가는 전기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가 하락폭은 축소 전망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17.1('22.2Q)→109.4(3Q)→104.0(4Q)→102.8('23.1Q)→**99.7(2Q)**
  - ※ 수출물가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9.5('22.2Q)→△0.9(3Q)→△6.0(4Q)→△8.7('23.1Q)→**△14.9(4Q)**
-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상위 3개 업체의 감산 효과가 2분기부터 가시화됨에 따라 3분기에는 가격 하락 폭이 전기 대비 5% 미만 수준으로 줄어듦 전망
  -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2.20('22.4Q)→1.82('23.1Q)→1.55(2Q)→**1.50(3Q)**
- **유가**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및 석유 재고 감소, 중국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감, 주요 산유국 감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0.4('23.1)→82.1(2)→78.5(3)→**83.4(4)→75.0(5)→75.0(6)**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2023.6월)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반도체 업황이 다소 개선되고 자동차, 선박 등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3분기에는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
-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수출 감소세는 이어지겠으나 주요 업체 감산으로 하반기



이후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될 전망

- 자동차는 친환경차 판매 호조 및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수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23년 3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하락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신규주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한 1,650억 달러 내외 수준 전망
- 수출액은 전기(1,558억 달러)보다는 증가하겠으나, 2022년 3분기 수출이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세는 지속
  -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2.2Q) 1,771→(3Q) 1,740→(4Q) 1,592→('23.1Q) 1,513→(2Q) 1,558
  -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2.2Q) 13.0→(3Q) 5.8→(4Q) △10.0→('23.1Q) △12.7→(2Q) △12.0
- 다만, 중국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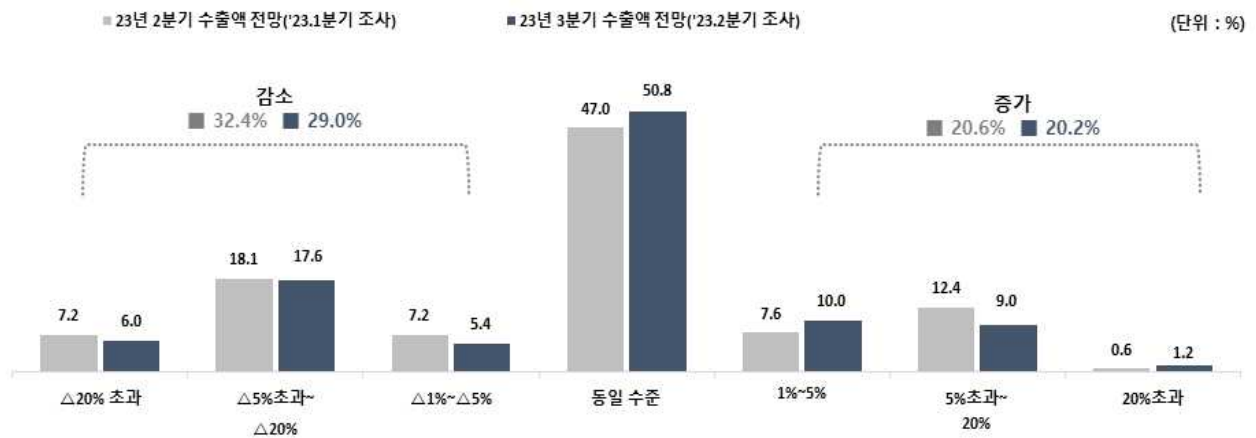


## 2. 수출기업의 '23년 3분기 수출액 전망 (응답 기업 500개사)

###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29.0%, '증가' 전망 20.2%로 '감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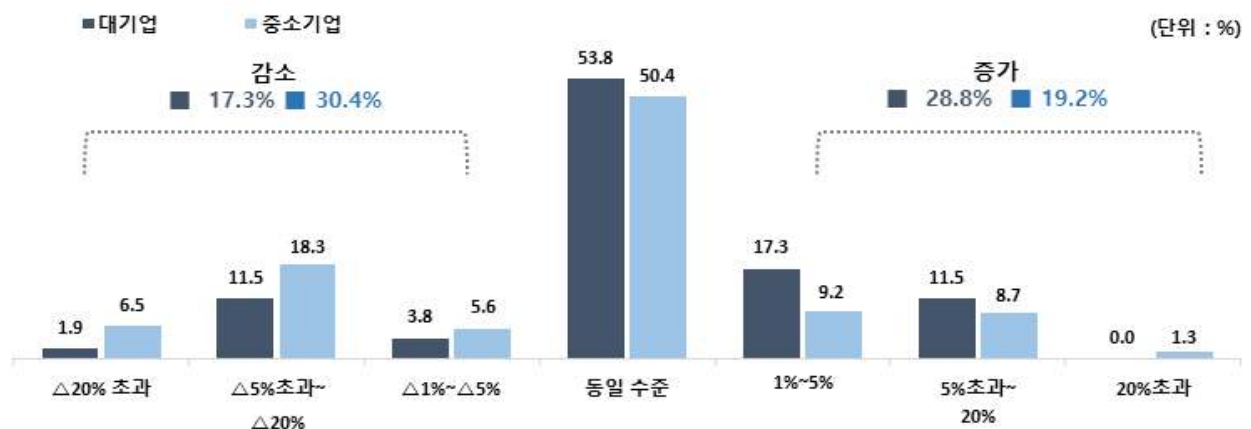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감소'(32.4%→29.0%)가 전기보다 3.4%p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증가'(20.6%→20.2%) 전망에 비해 높아 2023년 3분기 수출은 감소 전망이 우세
- '동일 수준' 전망 응답률(47.0%→50.8%)은 전기 대비 증가

### '23년 3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 (규모별) 대기업(35.2%→17.3%)은 '감소' 전망이 전기에 비해 17.9%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32.1%→30.4%)은 1.7%p 감소해 대기업의 수출 전망이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증가' 전망도 대기업(24.1%→28.8%)은 4.7%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20.2%→19.2%)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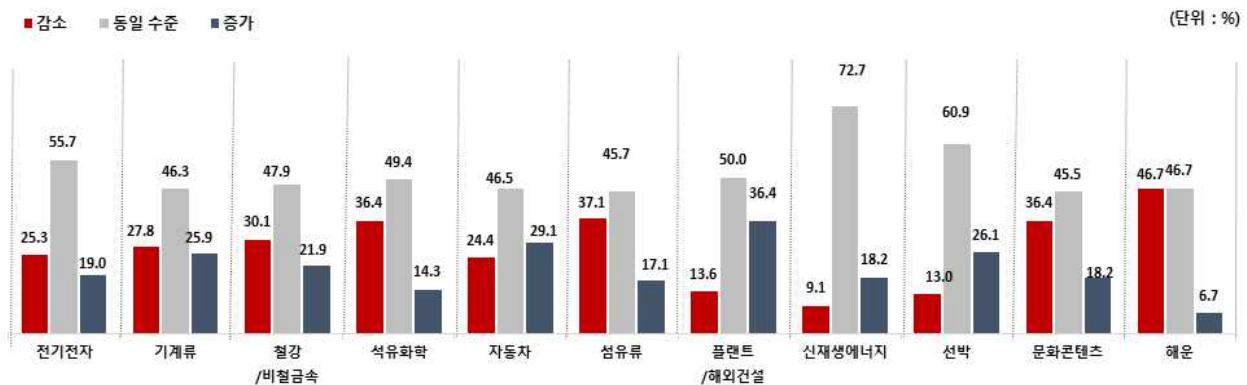
### '23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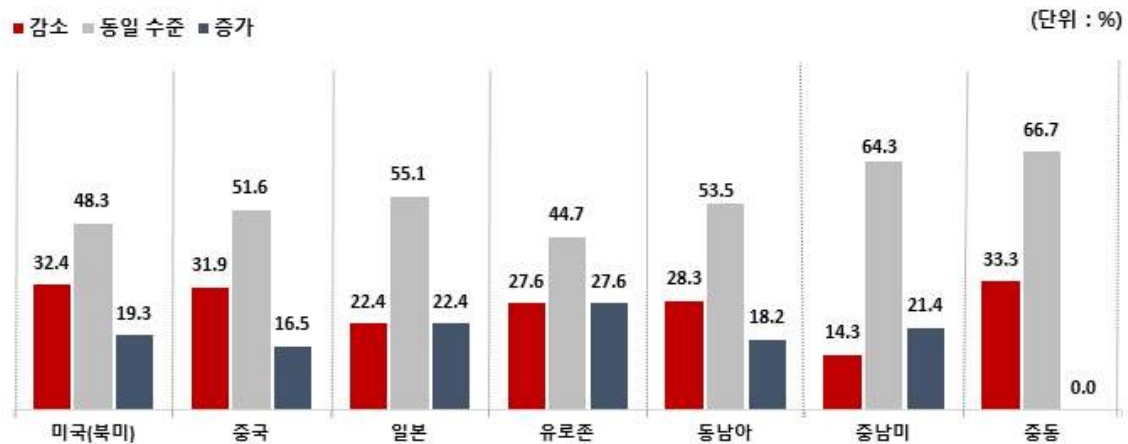
- (산업별) 해운(감소 응답비율 46.7%), 석유화학(36.4%), 섬유류(37.1%), 문화콘텐츠(36.4%) 등은 타산업 대비 '감소' 전망이 높은 편
- 전년동기 대비 '증가' 전망 응답 비율이 높은 산업은 플랜트/해외건설(36.4%), 자동차(29.1%), 선박(26.1%), 기계류(25.9%) 등

### '23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 (수출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중동(33.3%), 북미(32.4%), 중국(31.9%) 등
- 반면 '증가' 전망이 높은 지역은 유로존(27.6%), 일본(22.4%)

### '23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수출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23년 3분기 수출액 증감률 전망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6.0	17.6	5.4	50.8	10.0	9.0	1.2
규 모	대 기 업	1.9	11.5	3.8	53.8	17.3	11.5	0.0
	중 소 기 업	6.5	18.3	5.6	50.4	9.2	8.7	1.3
산 업	전 기 전 자	7.6	13.9	3.8	55.7	7.6	10.1	1.3
	기 계 류	7.4	17.6	2.8	46.3	9.3	13.9	2.8
	철 강 / 비 철 금 속	9.6	13.7	6.8	47.9	9.6	11.0	1.4
	석 유 화 학	6.5	20.8	9.1	49.4	9.1	5.2	0.0
	자 동 차	4.7	10.5	9.3	46.5	18.6	10.5	0.0
	섬 유 류	0.0	28.6	8.6	45.7	8.6	8.6	0.0
	플 랜 트 / 해 건	0.0	13.6	0.0	50.0	18.2	13.6	4.5
	신 재 생 에 너 지	0.0	9.1	0.0	72.7	18.2	0.0	0.0
	선 박	0.0	13.0	0.0	60.9	17.4	4.3	4.3
	문 화 콘 텐 츠	18.2	18.2	0.0	45.5	9.1	9.1	0.0
	해 운	0.0	40.0	6.7	46.7	0.0	0.0	6.7
수출 지역	북 미	5.5	20.7	6.2	48.3	11.0	8.3	0.0
	중 국	7.7	17.6	6.6	51.6	9.9	5.5	1.1
	일 본	4.1	14.3	4.1	55.1	6.1	16.3	0.0
	유 로 존	7.9	14.5	5.3	44.7	15.8	10.5	1.3
	동 남 아	6.1	19.2	3.0	53.5	9.1	5.1	4.0
	중 남 미	0.0	7.1	7.1	64.3	0.0	21.4	0.0
	중 동	16.7	0.0	16.7	66.7	0.0	0.0	0.0

주 : 총 500개사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원화환율 불안정’(36.4%), ‘원재료 가격 상승’(35.6%) 순 응답

-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화환율 불안정’(44.9%→36.4%) 응답이 전기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43.3%→35.6%) 응답률도 전기보다는 줄었지만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27.6%→32.4%)의 응답률이 전기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1.7%→30.4%),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12.8%→17.6%) 응답률도 증가 지속

#### ‘23년 2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500, 1순위+2순위 복수응답)



- (산업별) ‘원화환율 불안정’은 플랜트/해건(54.5%), 선박(47.8%), 철강/비철금속(42.5%), 석유화학(41.6%) 등에서 높게 응답
- ‘원재료 가격 상승’은 기계류(42.6%), 자동차(40.7%), 전기전자(39.2%), 선박(39.1%) 등에서 높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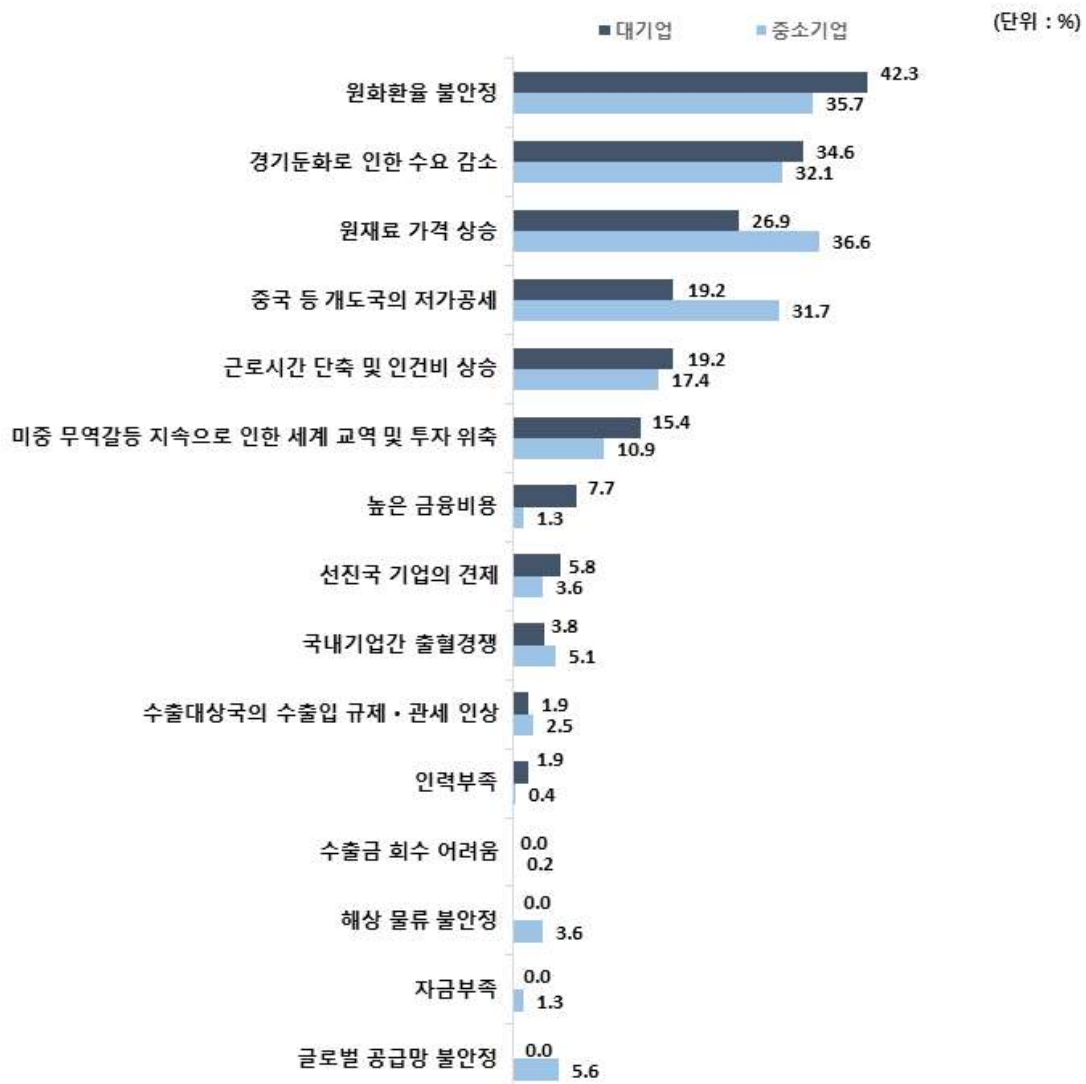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는 해운(60.0%), 섬유류(45.7%), 문화콘텐츠(45.5%)에서,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는 석유화학(41.6%), 철강/비철금속(41.1%), 선박(39.1%), 기계류(38.9%)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은 '원화환율 불안정(46.3%→42.3%)'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43.8%→36.6%)' 응답률이 가장 높음.
- 대기업은 두 번째로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44.4%→34.6%)' 응답률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원화환율 불안정(44.7%→35.7%)'을 높게 응답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의 경우 중소기업 응답률(23.0%→31.7%)이 전기에 비해 크게 증가

### '23년 2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00,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원재료 가격 상승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중국 등 개도국 저가공 품의 세	근로시간 축소 및 인건비 상승	미중갈등 무역으로 인한 교역위축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전 체		36.4	35.6	32.4	30.4	17.6	11.4	5.0	5.0
규 모	대 기 업	42.3	26.9	34.6	19.2	19.2	15.4	3.8	0.0
	중 소 기 업	35.7	36.6	32.1	31.7	17.4	10.9	5.1	5.6
산 업	전 기 전 자	26.6	39.2	32.9	24.1	15.2	17.7	3.8	10.1
	기 계 류	33.3	42.6	29.6	38.9	18.5	9.3	4.6	0.0
	철 강 / 비 철	42.5	31.5	34.2	41.1	13.7	12.3	6.8	2.7
	석 유 화 학	41.6	39.0	36.4	41.6	19.5	6.5	3.9	1.3
	자 동 차	38.4	40.7	30.2	18.6	24.4	11.6	1.2	5.8
	섬 유 류	40.0	22.9	45.7	34.3	5.7	17.1	2.9	5.7
	플랜트/해건	54.5	36.4	18.2	18.2	31.8	4.5	9.1	0.0
	신재생에너지	27.3	27.3	27.3	18.2	9.1	9.1	0.0	18.2
	선 박	47.8	39.1	8.7	39.1	26.1	8.7	8.7	0.0
	문화콘텐츠	9.1	0.0	45.5	9.1	9.1	0.0	27.3	45.5
	해 운	26.7	6.7	60.0	20.0	6.7	20.0	6.7	0.0
수출 지역	북 미	36.6	33.1	33.8	29.7	15.9	11.7	1.4	5.5
	중 국	35.2	25.3	28.6	36.3	15.4	20.9	6.6	5.5
	일 본	55.1	30.6	24.5	30.6	20.4	4.1	10.2	2.0
	유 로 존	31.6	43.4	31.6	32.9	19.7	10.5	5.3	2.6
	동 남 아	37.4	45.5	35.4	24.2	17.2	9.1	5.1	3.0
	중 남 미	21.4	50.0	28.6	42.9	21.4	0.0	0.0	14.3
	중 동	33.3	33.3	16.7	16.7	66.7	16.7	0.0	0.0

주 : 총 500개사 <북수응답: 1순위+2순위>



##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3년 7월 3일~7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00개 업체 (대기업 52개, 중소기업 448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	출	업	황
평	가	지	수
수	출	채	산
성	평	가	지
수	출	단	가
평	가	지	수
생	산	원	가
평	가	지	수
수	출	물	량
평	가	지	수
자	금	사	정
평	가	지	수

##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20년=100 기준으로 산출 (2023년 4월 수정)
- 2023년 1월부터 OECD 경기선행지수가 OECD 국가 전체에서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발표됨에 따라 변수 변화에 맞춰 추정 모형도 소폭 수정됨.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가 발표하는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경기선행지수</li> <li>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li> <li>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li> </ul>
수출	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실효환율</li> </ul>
산업	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수요 기계수주액</li> </ul>